

2024년 3월 10일. 10 March 2024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5 Whoever loves his life loses it, and whoever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26 If anyone serves me, h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there will my servant be also. If anyone serves me, the Father will honor him.

요한복음 John 12:25-26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입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사, 진리말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살려줄 자가 아니라!

He is Not Fit to Live!

사도행전 Acts 22:22-30

22.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The crowd listened to Paul until he said this. Then they raised their voices and shouted, "Rid the earth of him! He's not fit to live!"

23.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As they were shouting and throwing off their cloaks and flinging dust into the air,

24.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 하며, 심문하라," 한 대

the commander ordered that Paul be taken into the barracks. He directed that he be flogged and interrogated in order to find out why the people were shouting at him like this.

25.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As they stretched him out to flog him, Paul said to the centurion standing there, "Is it legal for you to flog a Roman citizen who hasn't even been found guilty?"

26.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 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When the centurion heard this, he went to the commander and reported it. "What are you going to do?" he asked. "This man is a Roman citizen."

27.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The commander went to Paul and asked, "Tell me, are you a Roman citizen?"

"Yes, I am," he answered.

28.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Then the commander said, "I had to pay a lot of money for my citizenship."

"But I was born a citizen," Paul replied.

29.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Those who were about to interrogate him withdrew immediately. The commander himself was alarmed when he realized that he had put Paul, a Roman citizen, in chains.

Paul Before the Sanhedrin

30.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The commander wanted to find out exactly why Paul was being accused by the Jews. So the next day he released him and ordered the chief priests and all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to assemble. Then he brought Paul and had him stand before them.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네 차례 변명을 실시합니다. 그 첫 번째 변명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한 마디로 바울의 변명이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개 변명은 상대의 오해를 풀어 현재 당사자가 당하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상대의 오해를 풀지도 못했고, 그가 당한 위기가 오히려 극대화 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바울은 변명의 본래 목적, 곧 자기를 보호함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했습니다. 듣는 이들도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함이 바울 변명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첫 번째 변명은 "설교"와 지나치도록 닮았습니다.

바울이 의지한 것은 듣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생명은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속하셨고, 그를 살리실 것입니다. 짧은 목숨 연장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22.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The crowd listened to Paul until he said this. Then they raised their voices and shouted, "Rid the earth of him! He's not fit to live!"

바울의 변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청중들이 바울에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23.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As they were shouting and throwing off their cloaks and flinging dust into the air,

떠들었습니다.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이런 정황은 바울이 사울로 불릴 때, 그가 스테반 순교 현장을 지킬 때와 대단히 흡사했습니다.

24.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 하며, 심문하라," 한 때
the commander ordered that Paul be taken into the barracks. He directed that he be flogged and interrogated in order to find out why the people were shouting at him like this.

천부장(the commander)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천상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무리들에게서 바울을 떼어놓기로 했습니다.

소위 "인민재판"에 맡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법이 있고, 규율이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더욱이 때는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터였습니다.

천부장이 명령했습니다: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그리고 이번에는 사건의 경위를 알기로 했습니다. 심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채찍질 형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사상에 깊이 빠진 자로서, 결코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5.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As they stretched him out to flog him, Paul said to the centurion standing there, "Is it legal for you to flog a Roman citizen who hasn't even been found guilty?"

부하들이 바울을 가죽 줄로 매었습니다.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너희가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는 절차도 없이 채찍질 하느냐?

바울은 로마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이 오늘 전 세계 민주사회 법의 기초가 된 것 중 하나가, 사람은 누구든지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그는 당연히 인간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소위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여기서 "추정"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이 법적 효력은 형사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시까지 지속합니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무죄로서의 법적 효력은 영구히 지속합니다(namu.wiki. 3-8-2024).

26.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 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When the centurion heard this, he went to the commander and reported it. "What are you going to do?" he asked. "This man is a Roman citizen."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27.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The commander went to Paul and asked, "Tell me, are you a Roman citizen?" "Yes, I am," he answered.

천부장이 직접 바울에게 왔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말하라!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28.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Then the commander said, "I had to pay a lot of money for my citizenship." "But I was born a citizen," Paul replied.

즉시 천부장은 바울을 같은 로마시민으로 대우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는지 말했습니다. 돈으로 산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태생이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사실상 한 수 위였던 것입니다.

29.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Those who were about to interrogate him withdrew immediately. The commander himself was alarmed when he realized that he had put Paul, a Roman citizen, in chains.

천부장의 명령을 받아 심문하려던 자들이 곧 물러갔습니다. 천부장이 명령을 거둔 것입니다.

또 천부장도 겹을 먹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면, 그가 제대로 그를 대우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Paul Before the Sanhedrin

30.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The commander wanted to find out exactly why Paul was being accused by the Jews. So the next day he released him and ordered the chief priests and all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to assemble. Then he brought Paul and had him stand before them.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천부장(the commander)은 진상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천부장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2 They will put you out of the synagogues. Indeed, the hour is coming when whoever kills you will think he is offering service to God. 3 And they will do these things because they have not known the Father, nor me.

요한복음 16:2-3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죽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5 Whoever loves his life loses it, and whoever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26 If anyone serves me, h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there will my servant be also. If anyone serves me, the Father will honor him.

요한복음 John 12:25-26

그 길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Remember Lot's wife! Whoever seeks to preser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will keep it.

요한복음 17:38

롯의 처는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군목으로 복무하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휘관의 지시를 따라 어떤 결혼식 주례를 서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 놀랍게도 둘 다 남자였습니다.

목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지휘관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절하면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미국장로교단의 헌법에 따라, 양심적 거부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휘관은 장로교단에 연락했습니다. 사실이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미국 헌법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양심"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단법은 이 신앙양심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For we cannot do anything against the truth, but only for the truth.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3:8

결론입니다.

우리의 변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Beware of men, for they will deliver you over to courts and flog you in their synagogues.

마태복음 Matthew 10:17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When they deliver you over, do not be anxious how you are to speak or what you are to say, for what you are to say will be given to you in that hour. For it is not you who speak, but the Spirit of your Father speaking through you.

마태복음 Matthew 10:19-20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2 So everyone who acknowledges me before men, I also will acknowledge before my Father who is in heaven, 33 but whoever denies me before men, I also will deny before my Father who is in heaven.

마태복음 Matthew 10:32-33

바울은 처음부터 주님을 시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 앞장섰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재판 때 예수님을 세 차례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그 죄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한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울처럼 심판대 앞에 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변명하는 것, 곧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불리해도, 오직 우리를 위하여 불의한 재판자리에 서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칭의로써" 인정해 주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서머나(Smyrna) 지역 순교자 폴리갑(Polycarp, 69-155)은 화형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다.
주님께서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다.
내가 어찌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순교자 박관준 장로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나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 예수 위하여 죽겠노라.

기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삼위 그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굽어 살피사,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